

TV부터 모바일까지... 삼성·LG, 신기술로 혁신상 휩쓸었다

CES 2024

삼성 최고혁신상 포함 28개 수상 갤럭시Z폴드5, 엑시노스 등 받아

LG 33개로 지난해 이어 '역대최대' 올레드 TV 12년 연속 혁신상 차지

내년 CES 2024도 삼성·LG가 주도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2024를 앞두고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S 혁신상에서 다수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고혁신상 3개를 포함해 28개,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와 함께 역대 최다 기록인 33개를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만 최고 혁신상 3개를 받았다. 게이밍 TV와 스마트홈 서비스로, 내년 CES2024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영상디스플레이 부문 14개와 함께 생활가전 8개, 모바일 5개 등 부문에서 혁신상에 올랐다. 갤럭시Z폴드5를 비롯해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삼성 푸드, 미세플라스틱 저감 필터 등으로 새로운 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반도체 부문 임베디드 기술에서도 UWB(초광대역) 솔루션인 엑시노스 커넥트가 혁신상에 포함됐다.

LG전자는 변치 않는 올레드 TV 인기에 더해 신기술까지도 혁신상에 이름



삼성전자가 CES2024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

을 올리며 지난해 (28개) 기록을 뛰어넘은 역대 최다인 33개 혁신상을 받았다.

올레드 TV는 2013년 출시 이후 12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차지했으며, LG전자가 받은 최고혁신상 2개 역시 올레드 TV 부문에서 나왔다. ▲게이밍&e스포츠 ▲영상디스플레이 ▲영상·화질처리 ▲AV부품&액세서리 ▲내장기술 등 5개 부문에서 12개 혁신상이 올레드 TV에 수여됐다.

스마트 TV 플랫폼 WebOS도 혁신상에 4개나 랭크됐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3개 부문에서다.

포터블스크린 LG스탠바이미Go도 인정받았다. ▲모바일 디바이스 ▲액세서리&앱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

상했다. 이와 함께 사운드바와 블루투스 스피커 엑스봄도 AV부품&액세서리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지난 IFA2023에서 첫 선을 보였던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도 생활가전(Living) 부문 CES 혁신상으로 선정됐다. 보조액세서리 유니버설 업키트도 함께다.

그 밖에 LG전자는 ▲신개념 캡슐커피머신 듀오보 ▲커브드 올레드 패널을 적용한 LG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주행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킨 LG 클로이 서버봇으로 혁신상을 휩쓸었다.

한편 CES2024는 내년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두산, 첨단 전동화·AI제품 기술력 인정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S7X, 오스카 더 소터 혁신상 선정

두산의 첨단 전동화, 인공지능 제품이 세계적인 혁신기술 경쟁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두산은 15일(미국 현지시각) 발표된 'CES 2024 혁신상'에서, 두산밥캣 완전 전동식 스kid 로더 'S7X' 모델과 두산로보틱스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 '오스카 더 소터(Oscar the Sorter)'가 혁신상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개최를 앞두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두산밥캣 'S7X' 모델은 ▲지속가능성, 에코 디자인 및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시티 부문 등 2관왕에 올랐다.

'S7X'는 두산밥캣 대표 제품인 스kid 로더 모델로, 내연기관은 물론 유압시스템까지 '완전 전동식'으로 구현한 친환경 제품이다. 동급 디젤 모델에 비해 부품 개수가 절반에 불과하고, 유압작동유를 비롯한 오일류의 양은 96% 줄어, 관리가 용이하면서도 유지비가 현저하게 낮다. 오염물질 배출은 전혀 없다.

제품 성능도 대폭 향상됐다. 순간 모터 회전력은 동급 디젤 모델 3배에 달한다. 또한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작업 상황에 맞게 출력을 조절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6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휴게 시간을 활용해 충전하면 종일 사용도 가



두산밥캣의 완전 전동식 스kid 로더 'S7X' 모델.

능하다. 소음과 진동도 현저히 줄었다.

인공지능 부문을 수상한 두산로보틱스 '오스카 더 소터'는, 코딩 없이 협동로봇을 손쉽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트 스위트(Dart Suite)'를 기반으로 AI 머신러닝 기술까지 적용한 재활용 분리수거 솔루션이다. 종이 컵, 플라스틱 용기, 캔 등을 분류하고 내용물을 제거한 뒤, 지정된 휴지통으로 옮긴다.

가격이 비싼 비전 인식기술 없이, 협동로봇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로 물체를 집으면서 강도에 따른 전류값, 크기 등의 차이를 측정하고 인식한다. 생김새가 유사한 물체도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도 분류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AI 머신러닝 기술로 물체 모양과 재질을 지속 학습해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향후 물류·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확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항공업계, 하반기 우수인재 대규모 채용

티웨이항공, 객실승무원 경력직 채용 진에어, 운항승무원 경력직 수시모집

국내 항공업계가 인재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항공기 운항 편수와 여객수가 80% 이상 회복되면서 항공사들은 급증하고 있는 여객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기재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하반기 공채를 통해 인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4일까지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객실승무원 경력사원 공개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 내년 항공기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경력직 객실승무원 채용이다.

모집 부문은 객실승무원 5년 이상 경력자로 내년 1월 중 입사와 근무가



국내 항공업계가 올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티웨이항공

가능해야 한다. 해외여행 및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이번 경력직 객실승무원 모집 근무지는 서울과 청주로 근무지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서류 접수 마감은 이달 24일 오후 2시까지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순으로 진행한다. 또 티웨이항공은 이달 내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도 실시하며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신입·경력사원 20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입사원 지원 접수는 지난 13일 마감됐으며 경력사원은 이달 20일까지 진행한다.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올 들어 2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으며 지난 달에는 B737 및 A320 계열의 항공기 정비 가능한 항공정비사 경력직 공고를 시행했다. 현재는 운항승무원 경력직 수시 채용을 진행하며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이이미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이 도심항공교통(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대구·경북권 UAM 교통망 추진

K-UAM 드림팀, 경상북도와 MOU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대구와 경북권을 잇는 UAM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SK텔레콤은 자사와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경상북도와 도심항공교통(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드림팀과 경상북도는 내년 4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경북 UAM 운용 환경을 분석해 상용화 단계별로 경북형

UAM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UAM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이번에 경상북도와도 손을 잡으면서 대구와 경북권을 아우르는 광역 UAM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운송·관광·공공·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 모델 개발, 전용노선 발굴,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 지역 기반 기업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UAM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북 UAM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T, 5G 상용 기지국 오픈 랜 무선장비 연동

오픈랜 장비 간 호환성 향상

KT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 기지국에 서로 다른 제조사의 오픈랜 무선장비(O-RU)를 연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오픈랜 기지국을 멀티 벤더로 연동하기 위해 노키

아의 5G 오픈랜 분산장비(O-DU)에 플리드와 에프알텍의 O-RU를 동시에 연결했다. 이번 검증은 KT의 5G 상용망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노키아의 O-DU에 기지국 장비 간에 표준화된 오픈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진행했다.

이를 위해 멀티 벤더 장비 간 인터페

이스 연동을 검증하는 상호 호환성 시험, 단말부터 코어까지 단대단 시스템을 구성해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E2E 테스트)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멀티 벤더의 O-RU를 동일한 O-DU에 연동한 것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이다. 같은 제조사의 장비만 사용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제조사가 다른 장비도 서로 연동할 수 있어 장비 간 호환성이 높아졌다. /구남영 기자